

■ 창간사 ■

왜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ts*)인가?

황혜성(이민인종연구회 회장)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이민이 발생하고 있어 ‘이민의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이주는 타 문화 간의 교류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문화와 인종간의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이민으로 인한 정체성과 소외문제가 심각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 사회 역시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점차 많은 연구자들이 국내외의 이민과 인종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이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통합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적인 관점, 그리고 통계 분석론적 방법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앞으로 이민 인종연구, 또는 ‘타자와 함께 살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2009년 2월 16일 <이민인종연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이민과 인종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과 4년 정도 학문적인 논의를 계속하여 왔고,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 하는 동안 우리의 연구가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문학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시는 연구자들과의 토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주와 이주민 문제는 인간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주와 이주민으로 초래된 갈등은 인간의 존재 조건과 인간 공동체를 새롭게 사유할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민인종연구회>는 이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근대는 신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은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에서 그 주체성을 찾았지만, 자기중심적 사고, 이기심, 타인에 대한 지배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후 19세기에 등장한 노동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Homo Faber)’역시 타인을 배려한다거나 자신의 성과를 타인과 공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심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 삶을 정주(定住)의 차원에서 보아왔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을 정주(定住)에 두고 국가와 종족, 종교 간에 갈등하고 반목하며, 구획을 나누어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담론에 갇혀있었고, 인문학은 이를 바탕으로 재생산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회는 바로 여기에 인문학의 위기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인종’, ‘종교’, ‘국가’, ‘민족’은 배제와 타자화의 기제로 작동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인종주의는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생물학적 인종주의는 설득력을 잃었지만 자본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선진국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이민이나 계약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인종주의’라는 새로운 인종주의가 등장해, 그들을 타자화하고 있습니다. ‘종교’ 또한 역사 속에서 ‘타자화’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유럽 유대인과 무슬림 이민자를 통해서 서구사회가 어떻게 종교로 ‘타자’를 생성해 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속화되는 전지구와 물질 속에서 한국사회로 유입되는 이주자의 수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200만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민과 인종, 종교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잠재적 불안 요인이라는 주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이민인종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호모미그란스(Homo Migrans) 창간사

(Homo Migrans)』를 창간했습니다. 『호모 미그란스』에서 이민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 문화적 갈등, 그 갈등 이면에 내제되어 있는 뿌리 깊은 인종적, 종교적 차별, 그리고 이민자로 타자화된 인간 개인의 정체성 혼란 등을 다루고, 『호모 미그란스』를 통해 역사학, 인류학, 문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타 학문 분과와의 협력 작업을 시도하여 이민인종에 관한 새로운 융합학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회는 학문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두 번의 학술대회를 열고, 발표된 우수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각 호를 특집으로 구성하여 5월 과 11월에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가 특집주제인 본 창간호에는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라틴아메리카, 호주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연구하고, 다문화주의의 전망을 살펴보는 논문들이 실렸습니다.

저희 학회는 『호모 미그란스』를 e-journal 형태로 발간하여 보다 많은 독자들이 이 학술지에 접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논의가 생산되고, 그리하여 더 나은 학술지로 발전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호모 미그란스』가 우리사회의 이주자로 인해 초래된 문제를 고찰하고 지구촌 내 상호간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본성을 정주(定住)가 아니라 이주(移住)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한국사회의 이주, 인종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타자에 대한 유연하고 열린 시각을 갖는 ‘공생(共生)하는 인간(Homo Symbious)’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mail: hshwang@hansung.ac.kr